

- **주요 뉴스:** ECB, 정책금리 0.5%p 인상. 역내 분절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
 - 터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
 - 미국 7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8개월래 최대. 공급부족 완화 신호일 가능성
 - 일본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금리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 국채금리 큰 폭 하락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0%],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1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성장주 및 기술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불구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예상보다 큰 폭 금리인상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5%,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둔화 가능성 등으로 2주래 최저
독일은 ECB 분절화 대응책의 세부 내용 미흡 등으로 이탈리아와의 스프레드 확대

※ 원/달러 1M NDF환율(1306.7원, -1.0원) 약보합, 한국 CDS 하락

		7/21일	7/20일	전일대비			7/21일	7/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9.0	3,959.9	0.99%	국채 금리 10y	미국	2.87%	3.03%	-15bp
	유럽	424.39	422.51	0.44%		독일	1.22%	1.26%	-3bp
	중국	3,272.0	3,304.7	-0.99%	CDS 5y	한국	47bp	48bp	-1bp
	일본	27,803	27,680	0.44%		중국	83bp	85bp	-2bp
	한국	2,409.2	2,386.9	0.93%	위험 지표	EMBI+	-	463	-
환율	달러지수	106.59	107.08	-0.45%		VIX	23.11	23.88	-3.22%
	유로화	1.0230	1.0180	0.49%		WTI유	96.35	102.26	-5.78%
	엔화	137.36	138.21	0.62%	원자재	구리	330.2	333.0	-0.83%
	위안화	6.7668	6.7558	-0.16%		금	1,718.8	1,696.6	1.31%
	원화	1,307.7	1,312.9	0.4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정책금리 0.5%p 인상. 역내 분절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

-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대(-0.5%→0.0%)가 종료. 기준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0.5%p 높여 각각 0.5%, 0.75%로 제시
- 성명서를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더 큰 첫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ECB가 추진하는 정책금리의 최종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부연
- ING의 Carsten Brzeski는 ECB가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선제적 지침(이전 통화정책회의에서의 0.25%p 금리인상 예고)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련의 금리인상이 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고 진단
- 한편 역내 취약국의 국채 금리 급등 방지를 위한 변속보호기구(TPI: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를 도입한다고 발표. TPI를 통한 국채매입 규모의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금 당장 TPI를 필요로 하는 국가도 없다고 강조
- 다만 일부에서는 TPI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국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고, 통화정책을 통해 특정 국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평가. 이는 향후 법률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내재
- Danske Bank의 Piet Christiansen은 ECB가 TPI를 통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실제로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3.55% +15bp)했고, 독일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확대(+12bp)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터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

- 4자(UN,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대표가 7/22일(금) 흑해 항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 이번 합의가 기대대로 시행되면 1800만톤의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등이 세계 곡물시장에 공급될 전망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 동안 에너지와 식량 등을 무기화하여 사용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를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7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8개월래 최대. 공급부족 완화 신호일 가능성**
 - 해당 건수는 25.1만건으로 전주 대비 7천건 늘어나 3주 연속 증가. 고용 여건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 다만 이번 결과로 연준의 통화긴축이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
-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OPEC+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
 -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은 OPEC+ 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크렘린궁은 OPEC+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건설이 지체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완료할 방침**
 - 인민은행, 주택당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모기지 상환 거부 문제가 발생한 건설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끝내 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 또한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금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
- **일본은행,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금리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
 - 7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단기금리 목표(-0.1%)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0% 수준 유지를 지속하기로 결정. 금년 및 내년 회계연도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각각 1.9%→2.3%, 1.1%→1.4%)한 반면, 금년 회계연도의 성장률 전망은 하향(2.9%→2.4%)
 - 구로다 총재는 금리인상 계획이 전혀 없으며, 기업이익 및 실질임금 보존을 위해 완화 기조가 요구된다고 설명.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나, 금리인상을 통한 엔화 강세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부연
- **아시아개발은행, 금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고물가 영향을 반영**
 - 금년 성장률 전망을 이전 전망치(5.2%) 보다 낮은 4.6%로 제시.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주요국의 통화긴축,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의 영향.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소폭 하향 조정(5.3%→5.2%)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및 유로존 7월 S&P 글로벌 종합 PMI, 일본 6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ECB의 금리인상, 선제적 지침 고수보다 물가안정 관련 신뢰회복을 강조 - 블룸버그**
(ECB Hike Showcases the Death of Central Banks' Forward Guidance)
 - ECB는 시장에 예고했던 0.25%p 대신 0.5%p 금리인상을 단행. 라가르드 총재는 ECB의 유연한 고물가 대처를 위해 선제적 지침 제시 중단을 언급
 -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ECB의 통화정책 관련 예측 가능성보다 물가안정 달성의 신뢰회복에 방점을 둔 결과라고 분석.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통화당국도 기존에 제시한 선제적 지침보다 큰 폭의 금리인상을 결정
 - 선제적 지침 포기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나, 다수의 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변화하는 경제지표에 따른 유연한 고물가 대응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
- **인플레이션 대응, 맹목적인 통화긴축 사용은 재고할 필요 - Financial Times**
(Reasons to think differently about inflation)
 - 최근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부 공급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수요 억제에 초점. 그러나 지금은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대응은 부적절. 미국에서 수요가 재화에서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 역시 통화긴축을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금-물가의 악순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심리차단 대책이 요구. 아울러 중앙은행은 향후 공급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신용배분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
- **최근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하락, 실적둔화 가능성에 추가 하락 예상 - WSJ**
(The Stock Market Is On Sale. That Doesn't Make It Cheap.)
-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엔화 약세 둔화 등으로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What's the Point of Hiking When Recession Loom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